

‘월 27만원’ 노인일자리 2명, 횡단보도 덮친 트레일러 참변

지난 1월 일자리 사업 선정...도로 쓰레기 줍는 활동 중 사고



20일 오전 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자동차를 실은 트레일러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숨지고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등 차량 여러대가 파손됐다. (사진=독자 제공)

“웬 날벼락 입니까. 어르신들에게 이런 참변이 일어나 안타깝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나섰던 어르신 2명이 자동차를 실은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오전 여수시 서교동 한재사거리에서 A(80·여)와 B(72·여)씨가 완성차 운반 트레일러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들은 여수시 노인일자리 보조사업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

여 중이었다. 서남동 3곳 중 1곳(11명 배정)을 담당해 도롯가 쓰레기를 줍는 일을 했다.

이들은 이 날도 평소처럼 노인일자리 상정하는 파란색 겹옷을 입은 채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조복불에 횡단 보도를 건너던 도중, 속절 없이 들이 닦친 트레일러에 치여 숨을 거뒀다.

이들은 지난 1월 사업에 선정됐으며, 한 달 중 10일간 오전 8시부터 3시간 동안 근무하고 월 27만 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초연금 대상자로, 소득과 세대구성 등을 고려해 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웬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도중 이런 참변이 일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56분께 여수시 서교동 한재사거리에서 완성차 운반 트레일러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5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다. 또 이 사고로 다른 보행자와 운전자 등 중상자 4명(심정지 1명)·경상자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여수=오상호기자



전력 수급을 위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한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켜고 근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8월13일까지 26일간 낮시간 대에 일시적으로 공공기관의 에어컨을 끄는 순회 에어컨 끄기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 대학기숙사에서 유학생 집단감염...n차 우려

베트남 유학생 8명 코로나19 확진 판정

광주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이날 오후 2시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는 12명으로, 광주 3181~3192번 환자로 분류됐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3191번은 남구의 한 4년제 대학 기숙사 방문자로 베트남 국적의 다른 유학생과 접촉한 뒤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대학기숙사발(發) 베트남 유학생 확진자는 전날 7명을 합쳐 모두 8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중 7명은 기숙사생이고, 1명은 지인으로 자취생활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15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양성 8명을 제외한 14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접촉자로 분류된 143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방역 당국은 베트남 국적 유학생 가운데 3160번이 지난 10일부터 12

일까지 경기도 성남을 방문했으며 성남4756번과 접촉해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지표 확진자가 성남 방문 이후 기숙사에서 1주일 이상 머문 것으로 보고 긴급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또 확진자 중 일부가 식당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점에 주목, n차 감염 등 추가 확산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접촉자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선욱기자

함평경찰, 사회적교통약자 ‘노인’ 보호 안전교육 호응

대한노인회함평군지회 회원50명, 교통안전교육



함평경찰서는, 지난 20일, 대한노인회함평군지회요청으로 금년도 제40기 노인대학을 방문, 회원 50명 대상으로 사회적교통약자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의식 재고를 위한 ‘교통안전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이륜차 및 사발이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30일 기준, 함평군 전체인구 31,526명중 65세이상 노령인구가 11,778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3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로 노령인구가 많은 군단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망사고 중 고령자들의 주 이동수단인 되버린 이륜차·사발이·전동차 및 농기계 사고가 대부분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및 육교 이용, 녹색불에 횡단, 이륜차 안전모 착용, 야간 외출시 밝은 옷 착용, 음주운전 안하기, 농기계 라이트 켜기’ 실천과 금년도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망사고 사례 설명으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경찰서에서 이륜차 안전모 및 전동차 야광조끼 배부와 사발이 및 농기계 반사지 부착활동 추진 홍보 등으로, 어르신 교통안전 의식 재고위한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교육실시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함평=김광춘기자

‘집합 제한 어기고’ 부서 회식서 만취 경찰관, 동료 때려

만취 소동 중 출동 지구대 경관 폭행...감찰 조사 착수

비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확대 첫날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이 방역 수칙을 어긴 부서 회식에서 만취, 소동을 벌이다 지구대 동료 경관을 때려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출동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A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0시1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앞에서 지구대 경관을 어깨 등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A경위는 술에 취해 차도에 뛰어드는 등 위태롭게 건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의

귀가 권유에 시비가 붙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경찰서 한 수사부서 소속인 A경위는 같은 팀 동료 6명이 참석된 회식에서 만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의 자세한 사건 내용을 파악하던 중, 해당 부서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까지 확인했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